

##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베트남 닥락 성 커피 생산에서 이주의 역할-

정수열\*

### The Linkage between Planned and Spontaneous Migration: The Roles of the Migration on Coffee Production in Dak Lak, Vietnam

Su-Yeul Chung\*

**요약 :** 베트남이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닥락(Dak Lak) 성(省)을 포함한 중부고원지대의 농업 발달이 있었으며 그러한 농업 발달에 연안지역에서 내륙고원지대로의 이주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이주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연계 관계가 커피의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교문 단위에서 차별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닥락 성으로의 이주 흐름을 통계자료로 분석하고 Ea H'Ding 교문과 Doan Ket 교문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와의 면담 그리고 농가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주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닥락 성 스케일에서 계획 이주가 초기에는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대신 자발적 이주가 점차 증가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져 이 지역이 커피 생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생산의 구체적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소지역 스케일에서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관계가 서로 다른 민족 구성, 정주 시기, 정부 개발 프로그램, 이주민 폭증 시기를 갖는 교문별로 상이하게 구현되었음이 밝혀져 국지적 맥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계획 이주, 자발적 이주, 커피 생산, 닥락, 베트남

**Abstract :** Vietnam's growth as the second largest coffee producer in the world has been fueled by domestic migration into central highlands. However, the detail migration processes have not been explicitly discussed. In particular, the existing literatures tend to describe the migration flow in a framework of planned migration versus spontaneous migration, paying less attention to the linkage between them. With a case study of Dak Lak province which is the leading robusta producer in Vietnam,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linkage between planned and spontaneous migration in a multiscale approach. The statistic data allow the researcher to know temporal association between the two type of migration in a province scale. The survey and interview about two coffee-producing communes - Ea H'Ding in Cu M'gar district and Doan Ket in Krung Buk district - inform us that the linkage between planned and spontaneous migration is contingent to the local contexts including ethnic composition, timing of settlements, government's development program, and timing of a large flow of in-migration.

**Key Words :** planned migration, spontaneous migration, coffee production, Dak Lak, Vietnam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37)

\*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sychung@smu.ac.kr)

## 1. 서론

베트남에서 커피는 일찍이 프랑스인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생산량이 적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생산량이 급증했고 현재 베트남은 브라질 다음 가는 세계 제2의 커피 생산 대국이 되었다. 베트남 내에서 커피 생산은 주로 중부고원지대에서 이루어진다. 과거 소수의 소수민족들이 흩어져 거주하는 변경 지역이었던 중부고원지대가 커피 생산지로 성장하는 데에는 이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베트남의 커피 농업에 있어 이주의 중요성을 인지한 기존 문헌은 이주를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이주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이주로 나누어 따로 분석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중부고원지대에서도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닥락(Dak Lak) 성(省)을 사례로 이주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닥락 성 내에서도 커피의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Ea H'Ding 꼬문<sup>1)</sup>과 Doan Ket 꼬문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전문가를 면담하고 커피 농가를 설문하고 그 중 일부를 면담하여 이주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써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 관계를 다층적 스케일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 커피 생산의 추이와 지역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중부고원지대 특히 닥락 성이 베트남 커피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닥락 성이 베트남의 핵심 커피생산지로 성장하는데 이주가 미친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사례지역을 개관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닥락 성 전체 스케일에서 그리고 꼬문 스케일에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관계를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

짓는다.

## 2. 문헌 연구: 커피 생산과 이주

### 1) 베트남 커피 생산

베트남에 커피가 도입된 것은 일찍이 1850년대 프랑스인에 의해서였으나 1970년대까지도 베트남의 농업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베트남은 1980년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를 거치면서 로부스타(robusta) 종 커피 재배지를 급격히 늘렸고 2002년에는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이 되었다(Ha and Shvely, 2008).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대부분은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수출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커피 수출량은 1984년에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0년에는 113만 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세계 커피 시장 점유율은 1989년에 1.2%에서 1999년에는 12.4%로 높아졌다(Doutriaux *et al.*, 2008). 이로써 베트남은 2011년에 로부스타 종 커피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며 2012년 현재 커피는 약 56만 베트남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다(BCEC, 2012).

베트남 커피의 대부분은 중부고원 지역과 남동부 지역의 일부에서 생산된다. 표 1은 2011년에서 2012년에 걸친 수확기에 이루어진 커피 생산을 성(省)별로 살펴 본 것이다. 닥락, Gialai, Kong Tum 등의 중부고원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63.2%를 담당하고 있으며 Lam Dong, Dong Nai, Binh Phuoc 등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성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커피 재배지 면적 또한 비슷한 지리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닥락 성은 19만 ha의 커피 재배지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커피 생산의 약 48%를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 내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표 1. 베트남 성(省)별 커피생산량, 2011-2012 재배연도

성(省)	면적 (ha)	생산량 (톤)	단위 면적당 생산량 (ha당 톤)
Dak Lak	270,400	545,000	2.02
Lam Dong	144,174	337,127	2.34
Gialai	77,067	155,029	2.01
Kon Tum	11,778	22,833	1.94
Dong Nai	18,346	33,153	1.81
Binh Phuoc	12,505	18,292	1.46
합계	558,470	1,144,134	2.05

출처: Buon Ma Thuot Coffee Exchange(BCEC) 통계자료

라오스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닥락 성은 베트남의 중심부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고원지대였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 초반을 거치면서 커피 생산 증가와 더불어 주요 농업 지대로 성장하게 되었다. 닥락 성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경작지 면적은 1979년 14,500 ha에 불과하였으나 10년 뒤인 1989년 32,620 ha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82,980 ha로 5년 만에 또다시 두 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감자, 콩, 발벼와 같은 일년생 고산 작물의 경작지와 고무와 같은 다년생 작물의 경작지도 1979년 이후 15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Tan, 2000: 55).

이러한 닥락 성이 농업 생산지로서 급성장은 인구 유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Hardy, 2000). 베트남 전쟁 이후 도시 지역의 인구압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에 의한 이주 장려 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Desbarats, 1987). 닥락 성의 경우 1976년 이후 20년에 걸쳐 약 57만 명이 유입되었다. 특히 1986년에 공식화된 경제개혁정책인 도이모이 이후 10년간 이주민 수가 약 31만 명에 달해 이 시기에 인구 유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현재 이주민이 닥락 성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에 달한다(Luong Thanh Son *et al.*, 2011)

## 2) 기존 연구 고찰 및 문제 제기

닥락 성을 포함한 중부고원지대에서 커피 생산과 더불어 일어난 급격한 자연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중부고원지대의 미개척 주변지역이 커피 생산을 통해 전지구적 생산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sup>2)</sup> Tan (2000)은 닥락 성을 사례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농부들이 삼림지를 경작지로 전환시켜 커피를 재배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또한 생산된 커피콩이 산지도매상, 인증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를 거쳐 최종소비자로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커피와 같은 전지구적 상품을 생산이 닥락 성과 같은 국지적 주변부에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변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닥락 성이 미개척지가 지구적 생산 시스템에 편입되어 세계적인 커피 재배지로 성장하는데 있어 이주민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커피 생산에서 얻어진 경제적 이득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간 것은 아니다.<sup>3)</sup> Geisler와 Shively(2008)은 중부고원지대에서 커피 재배지를 둘러싼 민족 간 불균등을 지적하였다. 닥락 성에서 민족별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수 민족인 킨(Kinh, Viet)족 이주민이 최대 소수민족인 에데(Ede)족 원주민보다 보다 넓은 토지를 가

지고 있으며 보다 높은 가구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원주민인 소수민족이 커피 산지 발달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한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례지역이 베트남 북서부 고원지역이지만 Sikor와 Vi(2005)는 도이모이 이후 국영농장과 합작사 해체와 시장 자유화 등의 상품 시장경제 도입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농가별 경제적 격차가 점차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sup>4)</sup>

닥락을 포함한 중부고원지대는 베트남에서 변경에 위치한 주변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커피 생산을 통해 주요 농업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닥락 성의 지역 경제는 커피라는 단일 현금 작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세계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지역의 성장과 쇠퇴가 결정되는 약점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ICARD and Oxfam, 2002). 실제 세계 커피 시장은 1990년대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주로 로부스타 종인데 그 가격이 급락하였다. 가격 정점이었던 1995년에는 1kg 당 1달러에 육박했으나 2001년에는 20센트 이하로 그 가격이 1/4 수준으로 떨어졌다.<sup>5)</sup> 이에 세계 커피 가격 변동이 닥락 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Ha와 Shevely(2008)은 1990년 중반 커피 가격 폭락 이후 커피 농가들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대응 방식으로는 관개시설이나 비료를 적게 사용하여 생산 비용의 절감이나 재배 작물의 다양화가 사용되는데 소규모 농가에 비해 대규모 농가가 소수민족 농가보다는 다수민족 농가가 그러한 대응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민족간 격차는 자금력과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이로써 커피 가격 하락이 닥락 성의 커피 농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농가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이었으며 특히 소수민족 소규모 농가를 더욱 한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커피 가격 하락의 악영향은 닥락 성 내에

서도 마을별로 그 정도가 달랐다. Agergaard *et al.* (2009)은 네 개의 꼬문을 사례로 그 영향이 분석하였는데 이주민과 원주민의 조합,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접근성, 커피 재배 시작 시점에 따라 상이하였다. 따라서 닥락 성의 인구성장과 경제 발달은 세계 커피 시장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역내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지적으로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문헌에서 드러나듯이 베트남 전쟁 이후 닥락의 변화상은 삼림훼손과 농경지 확대 그리고 커피 주요 산지로의 성장과 커피 가격 급락의 악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되며 그러한 변화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이주이다.

닥락으로의 이주는 두 가지 전략에 따라 이루어졌다(Hardy, 2000). 첫째는 정부의 전략이다. 신경제지구(New Economic Zone)와 그에 따라 설립된 국영농장의 노동력 공급을 위한 계획이주 프로그램을 말하며 1954년에 북부에 처음 실행되었다가 베트남 전쟁이후 남부 지역에 확대되어 적용되었다. 이들 정부의 이주 장려 정책은 변경지역 개발과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하에 이주한 사람을 계획 이주민(planned migrants)라 부른다. 둘째는 중부와 북부 평원지대 거주민들이 선택한 전략이다. 가구등록제도(household registration system)가 도이모이 이후 폐지됨에 따라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해 지고 국영농장 해체로 발생한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로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사람은 자발적 이주민(spontaneous migrants)라 부른다.<sup>6)</sup>

Hardy(2000)는 현실에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신경제지구를 위한 도로 건설, 개간 및 경지 조성,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시설 구비는 계획 이주민뿐만 아니라 자발적 이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계획 이주민의 친척에 대해서는 이주가 용인되었는데 '친척'의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먼 친척도 가족 재결합 명목으로 허용되었다. 이를 바

탕으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구분은 단순한 이분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 정부의 이민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의 이분법은 그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Anh *et al.* (2003), UN(2010) 등의 연구에서 두 유형의 이주 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실제 분석은 닥락 성 전체에 관한 통계자료와 닥락 성 내 두 개 꼬문을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과 커피 농가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형성시기, 정부경제정책, 접근성, 민족 구성과 같은 개별 꼬문이 가진 국지적 특성이 이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은 물론 이주가 지역 특성에 미친 영향을 더불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가 커피 생산지로서의 성장에 기여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라는 구분의 (비)현실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닥락 성으로의 이주와 국지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 방법론 및 설문지역 개관

연구자는 닥락 성을 2012년 11월 그리고 2013년 1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답사하였다. 각종 통계 자료 그리고 전문가 면담과 설문은 서부 고원 농업연구소(Western High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Science Institute: WASI)의 자문과 도움을 얻어 이루어졌다. 1975년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닥락 성의 주도인 Buon Ma Thuot에 위치하여 고산작물 농업과 임업을 위한 기술, 사회·경제적 발달, 그리고 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연구하는 정부 기관이다.

세 차례 답사에서는 주요 소득원이 커피인 꼬

문들 중에서 Ea H'Ding 꼬문과 Doan Ket 꼬문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인민위원회 사무소들을 방문하였다. 인민위원회 간부와 농민협회(farmer association)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커피 농가를 규모와 민족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직접 방문하였으며 가구주와 면담하였다. 1차와 2차 답사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3년 3월에서 4월에 3주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3차 답사에서는 농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 농가를 특정하고 가구주를 면담하였다. 아래는 통계자료와 인민위원회 관계자 면담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문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다.

#### 1) Ea H'Ding 꼬문

Cu M'gar 현에 위치한 Ea H'Ding 꼬문은 그 면적이 4,296 ha이며 2010년 현재 2,054개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그림 1). 인구는 9,778명으로 이 중 남성은 4,954명이며 여성은 4,824명이다. 이들은 8개 마을에 나뉘어 살고 있는데 1개를 제외한 7개 마을이 소수민족 마을로 전통적으로 에데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율은 6.03%이다.

원주민인 에데족은 화전농을 통해 밭벼, 카사바, 옥수수를 재배하며 살아 왔었다. 1981년에는 Ea H'Ding 국영 삼림 농장이 설립되어 캐슈넛과 목재를 생산하였다. 관리직 10명과 노무직 1,000여명이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새로이 유입된 킨족 이민자들과 경제활동 연령층의 에데족 원주민들이었다. 하지만 국영 농장 노동자들은 일정 시간만을 근무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기존에 자신이 경작한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었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으며 단지 그 사용권만을 개인에게 부여한다. 이 지역에서 국영 농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주민들이 개간하여 경작하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농민은 예전에 경작 하던 발벼, 카사바, 고구마,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커피는 주요 작물이 아니었다. 커피에 대한 지식은 이미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이 지역에 전수되었으며<sup>10)</sup> 1986년에 국가 소유 무역 합작사를 통한 판로가 확보되면서 커피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에 커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에 있는 커피 가격의 급등과 관련이 있다. 2010년 현재 총 농지면적 3,124ha 중 커피 재배지 면적은 2,134ha로 68%에 달해 커피가 주생산품임을 알 수 있다.

## 2) Doan Ket 꼬문

Krong Buk 현 Doan Ket 꼬문은 2010년 현재 2,054개 가구에 3657명이 거주하고 있다(그림 1). 소수민족은 14개 가구에 불과하다. 주민의 절대적 다수가 다수민족인 킨족이며 6개 마을에<sup>11)</sup> 나눠 살고 있다.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0.3%에 불과해 Ea H'Ding 꼬문에 비해 부유하다. 특히 Doan Ket 꼬문은 닥락 성의 주도인 Buon Ma Thuot와 하노이를 잇는 간선도로 가까이 입지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현재의 Doan Ket 꼬문이 입지한 지역은 1954년까지만 해도 극소수의 소수민족만이 흩어져 사는 삼림 지역이었다. 1954년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주민이 유입되었으나 이들은 Doan Ket 꼬문이 아닌 인근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 꼬문이 이주민을 받을 것은 1959년인데 이때 중부 지역에서 이주민이 고무농장 노동자로 유입되어 정착하였다. 하지만 1963년에 고무 농장은 해체되고 토지는 별다른 제약이 없이 개인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이주도 자유로웠다. 하지만 통일 후인 1976년에 기초적 형태의 합작사가 설립되어 형식적으로나마 개인의 토지는 몰수되었으며 주민들은 조합원이 되었다.<sup>12)</sup> 이때 주요 생산품은 발벼였다. 1981년 합작사는 실질적으로 해체되었고 이때부터 주민 개

개인이 자유롭게 경작하였다. 1993년에는 토지측량이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에 공식적인 토지대장이 발급되었다.<sup>13)</sup> Doan Ket 꼬문은 신경제지구(NEZ)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정부주도 계획이주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발적 이주민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한다.

현재 Doan Ket 꼬문의 권역 내에서는 국영 농장도 설립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과거 인근 지역에 커피 국영 농장이 두 개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Doan Ke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Doan Ket 꼬문의 주민들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12th March'라는 이름의 소규모 국영 농장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다가 도이모이가 있는 1986년에 해체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닥락 성에는 프랑스인이 커피 플랜테이션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그 재배 기술이 베트남 농부들에게 전수되었다. 과거의 Doan Ket 꼬문의 일부였던 An Lac 지역에는 그러한 플랜테이션이 있었기에 커피 재배에 관한 지식도 그때부터 이 지역에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끝난 후인 1982년에서야 커피가 소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했으며 1986년까지 커피 재배지는 무상으로 공급되어 총 경작지의 1/3인 200ha에 달했다. 커피가 실질적으로 대량생산된 것은 1994년이다. Doan Ket 꼬문에서 2010년 현재 총 농지면적 1,504ha 중 커피 재배지 면적은 1,248ha로 83%에 달해 커피가 주생산품임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Ea H'Ding 꼬문은 정주 역사가 길다. 전통적으로 소수민족인 에데족의 거주지였으나 국영 농장 설립과 더불어 다수민족인 킨족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성장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열대고산작물들이 경작되었으며 커피가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은 1990년대로 최근이다. 반면 Doan Ket 꼬문은 거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주민 위주 마을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제지구 지정, 국영농장 설립, 계획이주정책 실행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간섭이 없었으며 커피 재배 역사가

Ea H'Ding 꼬문보다 길다.

#### 4. 계획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본 장에서는 이주의 과정을 분석하여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관계를 규명하고 이주와 지역의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닥락 성으로의 이주 흐름을 조망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Ea H'Ding 꼬문과 Doan Ket 꼬문에서 일어난 인구 유입 과정을 살펴본다.

##### 1) 닥락 성으로의 이주

1967년 닥락 성의 인구수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베트남 전쟁 이후인 1979년에는 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급증하였는데 1995년에는 130만 명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10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인구 급성장에는 자연적 증가보다도 인구 유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sup>14)</sup>

인구가 급성장한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 유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우선 이주민 수는 총 65만여 명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을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나누고 그 추이를 살펴보면 계획 이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자

발적 이주는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종전 이후에는 계획 이주민이 자발적 이주민보다 9배 많았으나 1990년 초반에는 역전되어 자발적 이주민이 계획 이주민 보다 11배 가량 많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주 흐름을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순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에서 1985년까지 계획이주민의 수가 많은 것은 베트남 전쟁 직후 월북 정부에 의해 1954년부터 시행되던 신경제지구(NEZ) 프로그램이 남부지역인 닥락 성에 확대·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닥락 성은 삼림자원 뿐만 아니라 양질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농업적 활용 가치가 높아 국영 농장이 설립되었으며 이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계획이주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정부의 이주 프로그램은 농업적 활용도 제고라는 경제적 목적 외에도 정치적 군사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통일 베트남 정부는 변경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와의 국경 분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 이주민은 국영 농장 사원, 공무원, 군인, 그리고 이들과 친족 관계에 있어 가족재결합을 목적으로 한 이주민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계획 이주 프로그램은 정부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계획이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및 관개 시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계획 이주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었다.

표 2. Dak Lak 성으로 이주

(단위: 명)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6	합계
계획 이주	114,267	100,002	79,836	17,649	311,754
자발적 이주	14,693	40,688	91,658	195,804	342,843
합계	128,960	140,690	171,494	213,453	654,597



반면 자발적 이주민은 주로 국영 농장이 해체되고 가구등록제가 폐지된 1986년 도이모이 이후 닥락 성으로 이동해 왔다. 하지만 도이모이 이전에도 자발적 이주민은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주해 왔다. 첫째, 닥락 성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종전 후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생활이 어려워 그나마 자신이 알고 있는 닥락 성으로 돌아온 경우이다. 둘째, 정부 통제 밖에 있는 삼림 지역에 무단으로 이주하여 화전농을 하는 경우이다. 셋째,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계획 이주민에게서 닥락 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주한 경우도 있다. 특히 사슬 이주(chain migration)라 불리는 세 번째 경로는 도이모이 이후 승수효과를 내며 자발적 이주민 수를 폭증시켰을 것이다. 자발적 이주민의 닥락 성 내 주요 유입 지역을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는 Krong Buk 현, Cu M'gar 현, Krong Pak 현, 닥락 성의 주도인 Buon Ma Thuot 시였으나 그 이후 Krong Nang 현, Ea Kar 현, Krong Ana 현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정착지가 초기에는 중심 도시 주변 농업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가 점차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Ea H'Ding 꼬문과 Doan Ket 꼬문으로의 이주

Dak Lak 성이 커피 생산지로 성장하는 데에 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Dak Lak 성 내 커피를 생산하는 구체적인 장소라 할 수 있는 Ea H'Ding 꼬문과 Doan Ket 꼬문을 선정하여 농가 설문과 전문가 면담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상기 두 현으로 일어난 이주 과정을 분석한다. 이주 특성으로 계획 이주 혹은 자발적 이주, 이주시기, 이주 동기, 이주 정보원, 이주 자금원 등을 살펴본다.

Ea H'Ding 꼬문은 8개 마을 중 7개가 소수민족 마을로 분류될 정도로 소수민족의 비중이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 높다. 설문 조사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응답자 중 40%가 소수민족이었다

표 3. Ea H'Ding 꼬문과 Doan Ket 꼬문으로의 이주

	Ea H'Ding 꼬문(N=100)	Doan Ket 꼬문(N=100)
민족성		
킨 족	59 (59%)	99 (99%)
에데 족	32 (32%)	0 (0%)
여타 소수민족	8 (8%)	1 (1%)
무응답	1 (1%)	0 (0%)
계획이주	2	27 (Ngo Dinh Diem)
이주 시기		
Dak Lak성에서 태어남	13 (13%)	0 (0%)
1954년 이전	5 (5%)	0 (0%)
1954~1974년	13 (13%)	47 (48%)
1975~1985년	16 (16%)	35 (35%)
1986~1994년	17 (17%)	16 (16%)
1995~2000년	29 (29%)	0 (0%)
2001년 이후	4 (4%)	1 (1%)
무응답	3 (3%)	0 (0%)

이주 동기 (복수응답)		
가족이 이주하였기에	13 (17%)	42 (41%)
예전 거주지에 일자리 부족해서	26 (35%)	0 (0%)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25 (33%)	24 (24%)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5 (7%)	8 (8%)
정부 이주 프로그램으로	2 (3%)	27 (27%)
무응답	4 (5%)	0 (0%)
이주 정보원 (복수응답)		
가족 혹은 친지	49 (56%)	67 (67%)
친구	15 (17%)	1 (1%)
정부	1 (1%)	29 (29%)
소개소	0 (0%)	0 (0%)
무응답	23 (26%)	3 (3%)
닥락 성 내 2차 이주 경험	22 (22%)	33 (33%)
토지 획득 방법 (복수응답)		
상속	24 (23%)	43 (30%)
킨족에게서 구매	35 (33%)	60 (42%)
소수민족에게서 구매	25 (24%)	1 (1%)
킨족에게서 임대	2 (2%)	0 (0%)
소수민족에게서 임대	1 (1%)	0 (0%)
개간	14 (13%)	32 (22%)
분배 받음	4 (4%)	7 (5%)

출처: 자체 설문조사.

(표 3). 소수민족 중 다수가 에테족이었고 소수의 호아(Hoa)족, 크메르(Khmer)족, 농(Nung)족도 있었다.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소수민족은 현재 거주지에서 태어난 원주민일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점은 Ea H'Ding 꼬툼이 긴 정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지인들이 이주해 오는데 장애가 새롭게 정주가 이루어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함의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닥락 성으로의 이주가 시작되던 베트남 전쟁 종전직후에도 Ea H'Ding에 정착한 이주민이 설문조사에서 적게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1981년에 설립된 Ea H'Ding 국영 삼림 농장과 인근 지역의 국영 농장은 킨족 계획이민자의 유입 요인이 되었다. 킨족인 Phung씨의 경우 부친

이 1987년 커피 국영기업에 취업하면서 동반 이주해 왔다 한다. 하지만 국영기업이 1991년에 해체되어 토지를 배분받고 자신이 추가로 개간하여 커피 농장을 만들었다. 또한 Xo씨의 경우 교사 은퇴 후인 1991년에 신경제지구(NEZ)를 보충하기 위한 계획이주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에는 Dak Lak 성의 일부였던 Dak Nong 성에 정착하였다. 그는 정부로부터 0.2ha의 땅을 제공받았지만 토질이 나빠 작황이 좋지 않아서 주로 농업 노동자로 일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Ea H'Ding 꼬툼에 있는 0.6ha 땅을 구매하면서 1995년에 이주해 왔다. 이와 같이 역내 재이주를 통해 Ea H'Ding 꼬툼에 거주하게 된 경우도 설문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응답자 중 22%에 달했다.

하지만 Ea H'Ding 꼬문의 경우 국영 농장이 소수민족 원주민으로부터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었기에 이주민의 흡인력은 제한적이었다. 설문 응답자 중에서 오직 2명이 계획이주민이라고 밝혔다. 에데족 남성인 Nie씨의 경우 Ea H'Ding 꼬문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고 있다. 에데족이 모계 사회이기에 Nie씨는 결혼 후 부인이 거주해 왔던 역대 다른 마을로 이주하였는데 이것이 자신이 평생 동안 행한 유일한 이주였다. 그는 화전을 통해 밭벼, 콩, 옥수수를 주로 재배해 왔으며 베트남 전쟁 종전이후인 1977년 커피를 재배하고 시작했다. 하지만 1981년에 'Buon Da Vam'이라는 국영 임업 농장이 설립되고 토지를 몰수했다. 국영 농장에서의 근무가 의무적이었으며 Nie씨는 2년간 일하였다.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았지만 국영 농장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충분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 생활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그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이 개척한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었다. 1993년 땅에 대한 토지대장을 교부받음에 따라 그 사용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소수민족 원주민은 집단 농장 해체 이후 분배 받은 토지를 킨족 이주민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주민이 에데족에게서 토지를 구매한 경우가 24%에 달했다. 이 거래에서 원주민이 갖는 위험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한다. 우선 판매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은 보다 외딴 곳으로 옮겨가 개간을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민족별 거주지 분리 패턴이 나타났다. 즉 분배 받은 토지가 주로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 미개간지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킨족은 도로변에 에데족은 그와 먼 곳에 거주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다락 성의 주도인 Buon Ma Thuot과 하노이를 잇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Doan Ket 꼬문는 정주 역사가 Ea H'Ding 꼬문에 비해 짧다. 정주 역사의 길고 짧음은 민족 구성과 연계되어 있다. 2010년

현재 2,054개 가구 중 오직 14개 가구만이 원주민인 소수민족이며 대다수 가구는 킨족 이주민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편향된 민족 구성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1954년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극소수의 소수민족들이 흩어져 사는 삼림 지역이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1959년 월남 정부에 의해 내륙지대 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계획이주민들이 Doan Ket 꼬문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Duong씨는 1959년 부모가 Ngo Dinh Diem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Binh Dinh 성에서 Dak Lak 성으로 동반 이주해 왔다. 당시 마을 일대는 정글로 덮여 있었으며 그의 가족은 월남 정부로부터 6개월분의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0.3ha의 땅을 제공받았다. 부친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무 농장에서 근무하였으나 1963년에 들어 농장이 해체되면서 자신의 땅에 밭벼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렇듯 Ngo Dinh Diem 정권이 실권하고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이주 또한 자유로웠다.

이주의 두 번째 흐름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루어졌다. 통일 베트남 정부는 이 지역에 기초적 형태의 합작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몰수하였으며 주민들은 조합원이 되었다.<sup>15)</sup> 하지만 토지 몰수는 형식적이었고 주민은 자신이 경작하던 토지에서 경작을 계속하였다. Thuy씨는 1986년에 이주해 와서 '12th March'라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에 근무하였다. 그의 남편이 지역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미 친척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형적인 사슬 이주 과정을 통해 정착한 경우이다. 현재 1990년에 해체된 국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0.5ha의 땅에 커피를 경작하고 있다. Nguyen씨 또한 1995년 친척의 소개로 국영기업 농장에 일자리를 잡으면서 이주해 왔으며 그 후 저축과 대부를 통해 땅을 구매하고 커피를 재배하게 되었다. Thuy씨도 고향인 Ninh Binh 성에서 농지가 부족하여 1998년에 이미 이주해온 친형

의 도움으로 2003년에 이주해 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신의 이주 정보원으로 가족이나 친척을 꼽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도이모이 이후 특히 토지대장이 발부된 1994년 이후로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신규 이주민을 받아들인데 필수적인 미개간 토지가 권역 내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 농가 설문을 통해 밝혀진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주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Ea H'Ding 꼬문은 소수민족인 에데족이 주로 거주하였으나 국영 농장 설립과 더불어 다수민족인 킨족 이주민이 유입되었다. 그 이후 자발적 이주민이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반면 Doan Ket 꼬문은 식민해방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을 개발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계획이주민들에 의해 촌락이 형성되었다. 베트남 전쟁 종전 후에는 간선 도로변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이주민의 유입이 있었으나 미개간 토지가 더 이상 남지 않자 이주민의 수가 급감하였다.

## 5. 결론

베트남이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닥락 성을 포함한 중부고원지대의 농업 발달이 큰 역할을 하였다. 연안지역에서 내륙고원지대로의 이주가 없었다면 그 지역의 농업 발달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이주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구분하고 따로 분리하여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연계 관계가 커피의 생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꼬문 단위에서 차별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밝히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닥락 성에 위치한 Cu M'gar

현 Ea H'Ding 꼬문과 Krong Buk 현 Doan Ket 꼬문을 사례로 통계자료, 전문가 면담, 농가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주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닥락 성에서 초기에는 계획 이주가 주요 흐름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자발적 이주가 주된 흐름이 되었다. 계획이주의 감소 효과는 자발적 이주의 증가로 상쇄되면서 닥락 성으로 일정 숫자의 이주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발달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직후 계획이주가 주된 흐름이었던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내륙고원지역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홍하강과 메콩 강 유역의 인구압을 낮추고 국경 수비와 소수민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주를 독려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 가구등록제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주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자발적 이주민은 방랑자적 계절 노동자로 진입하여 정착하거나 당국의 통제가 닿지 않는 정글 지역에서 무단 화전농을 하거나 벌목하는 이들이었다. 이들 모두 베트남 전쟁 이후 연안지역의 궁핍한 경제 상황과 비공식 경제의 존재 및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 도이모이 이후 집단 농장 해체에 따른 토지 분배와 가구등록제의 폐지는 자발적 이주를 조장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계획이주민 또한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주의 흐름을 통제해 보려는 정부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상은 닥락 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의 연계와 그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연계 관계는 닥락 성 내 소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 Ea H'Ding 꼬문과 Doan Ket 꼬문으로의 이주를 전문가와 농가 가구주를 면담하고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소수민족인 에데족의 오랜 정주지인 Ea H'Ding 꼬문에서는 국영 농장의 설립 이후에도 소수의 계획 이주민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국영 농장이 해체된 이후 지

방정부로부터 토지를 분배받거나 에데족에게 토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킨족의 자발적 이주민이 유입되었다. 반면 Doan Ket 꼬문의 경우에는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과거 월남 정부에 의해 계획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촌락이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베트남 전쟁 이후 점차 활성화되는 커피 생산과 수출과 Buon Ma Thuot와 하노이를 잇는 간선도로 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자발적 이주민들이 유입되었고 미개간 토지가 더 이상 남지 않자 이주민의 수가 급감하였다. 결론적으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관계는 서로 다른 민족 구성, 정주 시기, 정부 개발 프로그램, 이주민 폭증 시기를 가졌던 닥락 내 소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문헌들은 베트남 커피 생산에 있어 이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이들 양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닥락 성 스케일에서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의 연계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커피 생산의 구체적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꼬문 스케일에서 양자 간의 연계가 차별적으로 구현됨을 밝혀 이주 흐름에서 국지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 주

- 1) 베트남 공식 명칭은 '싸(Xa)'이다.
- 2)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도 베트남 중부고원지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조준형 외(2011)는 람동 성의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ODA 농업협력사업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람동 성의 농업 전반에 대해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개관하였으며 양국의 협력 사업을 도목하다 보니 연구의 초점은 커피에 맞추어지지 않았다.
- 3) 김호섭 외(1999)가 하노이 시와 그 인근 농촌을 비교 분석하여 도이모이 이후 도농 간 격차가 심해졌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하지만 도이모이의 일환인 개방정책이 닥락 성의 커피 생산과 수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고 이를 계기로 닥락 성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에 이들 연구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 4) 도이모이 이후 농촌 지역 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소진광(2011)이 있다.
- 5)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ICO) 통계자료 ([http://www.ico.org/new\\_historical.asp](http://www.ico.org/new_historical.asp)).
- 6) 본 연구는 닥락 성의 커피 재배지로서의 성장에 대한 이주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신규 농업 지역으로의 이주라 할 수 있는 닥락 성으로의 이주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Thrift and Forbes(1985)와 한도현(2000)은 도이모이 이후 도시화와 그에 따른 도시 문제의 심화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 7) 도이모이 이전 베트남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강우(2010)의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8) 현재의 Ea Tar 꼬문과 Ea H'Ding 꼬문은 1980년대에 Ea H'Ding Town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나 1994년에 분리된 것이다.
- 9) 토지 사용권 문서는 'White book'이라 불리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위 'Red book'으로 대체되었다.
- 10) 커피가 프랑스인에 의해 닥락 성에 전수된 시기는 1915년에서 1920년 사이이며 1960년까지 거의 40여개의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되었다(Luong Thanh Son et al, 2011: 90).
- 11) Doan Ket 꼬문은 도시화된 농촌지역으로 그 권역 내 마을은 Thon이 아닌 To Dan Pho라 불린다.
- 12) 기초적 형태의 합작사와 달리 고급합작사는 꼬문 단위로 조직되며 토지는 완전 몰수된다. 이들은 도이모이 이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 13) 1993년에 이루어진 측량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2012년에 재측량이 이루어졌고 이전의 토지대장인 Red Book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는데 이를 Pink Book이라 구분해서 부른다.
- 14) 베트남 전체의 권역 간 이주 흐름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닥락 성이 속한 중부고원 지역이 주요 유입지역임이 드러난다. 1999년과 2009년 센서스 자료에서 남동부 지역과 중부고원 지역만이 인구유입률이 인구유출률보다 높은 양(+)의 순이주율을 보이며 여타 북부, 홍하 델타, 중부 연안, 메콩 델타 지역 모두 음(-)의 순이주율을 보인다(UN, 2010: 27쪽).
- 15) 합작사에 대한 특히 도이모이 이후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전경수·한도현(1996)의 연구를 참조하라.

## 참고문헌

- 김호섭·공유식·한도현·신치용, 1999, “베트남의 시장 지향적 개혁과 소득분배의 변화: 홍하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9, 67-94.
- 소진광, 2011, “베트남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2), 71-94.
- 이강우, 2010,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방식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4(2), 215-236.
- 이한우, 2011,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강학술총서 28, 서강대학교출판부.
- 전경수·한도현, 1996, 현대 베트남 대도시내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 하노이 시 싸 다이모의 사례, *wldurdusr* 5(3), 103-144.
- 조준형 외, 2011, “베트남 람동성의 농업현황 및 한-베 ODA 농업협력사업전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3, 465-474.
- 한도현, 2000, “시장 경제 도입 이후 베트남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동남아시아 연구* 10, 67-94.
- Agergaard, J., Fold, N. and Gough, K., 2009, “Global-Local interactions: Socioeconomic and spatial dynamics in Vietnam’s coffee frontier,” *the Geographical Journal* 175(2), 133-145.
- Anh, D.N., Tacoli, C. and Thanh, H.X., 2003, Migration in Vietnam: A review of information on current trends and pattern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Migration Development Pro-Poor Policy Choices in Asia*.
- Barney, K., 2009, “Laos and the making of a ‘relational’ resource frontier,” *The Geographical Journal* 175, 146-159.
- De Koninck, R., 1996, “The Peasantry as the territorial Spearhead of the State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Vietnam,” *Sojourn* 11(2), 231-258.
- Desbarats, J., 1987,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Vietna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 43-76.
- Doutriaux, S., Geisler, C and Shively, G., 2008, “Competing for coffee space: development-induced displacement in the central Highlands of Vietnam,” *Rural Sociology* 73(4), 528-554.
- Ha, D. T. and Shively, G., 2007, “Coffee, Boom, Coffee Bust and Smallholder Response in Vietnam’s Central Highland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2(2), 312-326.
- Hardy A., 2000, “Strategies of Migration to Upland Areas in Contemporary Vietnam,” *Asia Pacific Viewpoint* 41(1), 23-34.
- Hung, B.T., Dung, N.Q., Kim, S.S., 2004, “Situation of Community Forest Resource Management in Vietnam,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209-216.
- ICARD(Information Centre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nd Oxfam, 2002, *The Impact of the Global Coffee Trade on Dak Lak Province, Viet Nam: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Luong Thanh Son, *et al.* 2011, Dak Lak Museum.
- Sikor T and Vi, P.T.T., 2005, “The Dynamics of Commoditization in a Vietnamese Uplands Village, 1980-2000,” *Journals of Agrarian Change* 5(3), 405-428.
- Tan, S. B-H., 2000, “Coffee frontiers in the Central Highlands of Vietnam: networks of connectivity,” *Asia Pacific Viewpoint* 41(1), 51-67.
- Thrift, N. J. and Forbes, D.K., 1985, “Cities, Socialism, and War: Hanoi, Saigon and the Vietnamese Experience of Urbaniz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 279-308.
- United Nations, 2010, *Internal Migr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Viet Nam*.
- Vietnam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9, *Migration and Urbanization in Vietnam: Patterns, Trends, and Differentials*.
- 교신: 정수열, 110-743,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화: 02-2287-5294, 이메일: sychung@smu.ac.kr
- Correspondence: Su-Yeul Chung, Department of Geog-

raphy,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7, Hongji-dong, Jongno-  
gu, Seoul 110-743, Korea, Tel: 82-2-2287-5294,  
E-mail: sychung@smu.ac.kr

최초투고일 2013년 7월 1일  
수 정 일 2013년 7월 9일  
최종접수일 2013년 7월 19일